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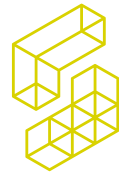
SECTION 1.



OVERVIEW

발간사	07
심사 총평	09
주제 선정	10
공모 개요	11

SECTION 2.



WINNERS

대 상_	Room in Room	김유은, 박성전	16
금 상_	LIVING IN BETWEEN	이재명, 최혜린	20
은 상_	snCs	홍수민, 황보경주	24
동 상_	미로가	이혜준, 손은지	28
동 상_	H.H.H.HOUSE	정예나, 박상희	32
장려상_	청년 상인 자람터	최재원, 권용현	36
장려상_	coNsider	류영민, 양지운	38
장려상_	Select your boundaries	김윤중, 우정빈	40
장려상_	Take a 'Fo'rest	김선우, 강민협	42

장려상_	Co.W.Co	신현준	44
장려상_	Creator Project	김은경, 이수민	46
장려상_	위로	박찬화, 김재훈	48
장려상_	Plant ; 일상 속 특별함	강민지, 류지연	50
장려상_	우리 CC(Campus Co-living)할래?	박민용, 이재현	52
장려상_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손준모, 한지훈	54
장려상_	+he village	정예림, 이정민	56
장려상_	중앙에서 만난 이방인	안연후, 김동경	58
장려상_	Studio In Connection	염광희	60
장려상_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김용현	62
장려상_	사적보다 먼, 공적보다는 가까운	이형민, 어윤범	64

SECTION 3.



GALLERY

갤러리	68
-----	----

#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 OVERVIEW



SECTION 1.

- 발간사
- 심사 총평
- 주제 선정
- 공모 개요



## 작품집을 발간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그동안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새로운 주거유형을 발굴해 왔고, 대한민국 건축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뛰어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창의와 도전의 장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25주년을 맞아 최초로 시도한 3D 영상작품과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2차심사 시행 등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모임 욕구를 더욱 촉진하여 물리적 모임 대신 온라인·디지털 등 비대면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또한 집안에서의 생활이 중요해지면서 '집'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을 공유하는 범위까지 확장하려고 합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그리고 주거비 상승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동주거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공감하는 주거, 코리빙(Co-living)」으로 설정했습니다.

전국 68개 대학의 196팀이 참가한 이번 작품들 중에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거의 질을 한층 높이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LH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인 코리빙 형태의 공동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이끌어 주신 코디네이터 송규만 교수님과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주신 민성진 대표님, 김태영 교수님, 윤재민 대표님,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느라 고생한 주택기술처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2

건설기술본부장 **장철국**



## 심사 총평

제25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일반적인 셰어하우스 형식에서 더 나아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거주하는 코리빙(Co-living) 건축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에 머무는 공유 주거개념과는 다르게 코리빙은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독립된 개인공간과 구성원들 공통의 관심사에 필요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적 특성이 강화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공모전 주제의 취지는 건축가가 주어진 공간프로그램에 따라 단지 공간설계를 하는 제한된 역할을 넘어 실사용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간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까지도 제안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현 시대 한국의 주거가 가진 사회적 이슈 발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적 해결책을 실사용자 그룹에 따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 인상 깊은 작품들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건축가 세분도 한정된 수의 본선작과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논의를 하였고, 학생들의 작품 발표회에서도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리빙이라는 새로운 주거형식에 대해 참여 학생 뿐 아니라, 코디네이터, 심사위원, LH 관계자분들 모두 새로운 주거형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사회, 사람, 건축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제시한 모든 학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미래 한국건축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 12

홍익대학교 송규만

## 주제선정

# 「공감하는 주거: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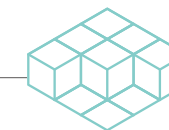


최근 도심 집중현상과 주거비의 상승,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주거 유닛을 공유하는 형태인 셰어하우스(공유주거)가 등장했다. 국내의 셰어하우스는 2016년을 시작으로 현재 초기 단계에 있고, 수요측면으로 2028년 20만 가구, 약 1.3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코리빙(co-living)의 공급은 현재 6,307가구에서 14,460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시장에서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상품과 고객의 다양화에 따른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반적인 공유 주거 형식인 셰어하우스는 하나의 주거 유닛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개념으로,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주자 간의 공감대 부족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거주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셰어하우스가 가진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코리빙(co-living)이라는 공유 주거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코리빙은 단순히 한 주거 유닛에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하우스와 달리,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나 특정 목적에 부합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와 거주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개념에 머무는 셰어하우스와는 다르게 코리빙은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독립된 개인 공간과 구성원들 공통의 관심사에 필요한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 는 점에서 커뮤니티적 특성이 강화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악기 연주자만 입주할 수 있는 코리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코리빙과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자들의 공통 관심사나 취미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매니저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는 커뮤니티 서비스의 제공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학생공모전은 제시된 6개의 대상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조건과 거주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코리빙의 테마를 설정하고 건축설계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공모개요



### 01. 목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력개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

### 02. 코디네이터

송규만 교수 /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 03. 심사위원

민성진 대표 / SKM architects 대표  
윤재민 대표 / JMY architects 대표  
김태영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 04.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1팀 2인 이내

### 06. 대상지

6개 중 주제에 적합한 부지를 1개 선정하여 계획

- |  |   |
|--|---|
|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br>대지면적: 4,918㎡ / 자연녹지지역    | 4.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br>대지면적: 1,779㎡ / 일반상업지역          |
|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br>대지면적: 2,224㎡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br>대지면적: 2,36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br>대지면적: 1,806㎡ / 준주거지역       | 6.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br>대지면적: 2,508㎡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06. 참가신청

참가신청 및 질의응답 기간  
2021. 06. 14. ~ 2021. 07. 02.

### 07. 작품접수

1차 : 2021. 08. 04.  
영상 콘텐츠 및 작품설명서 제출  
2차 : 2021. 09. 08.  
모형 제출

### 08. 작품심사

1차 : 2021. 08. 13.  
2차 : 2021. 09. 10.

### 09. 발표 및 시상

당선작 발표  
2021. 09. 15.  
시상식  
2021. 10. 26.

#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 WI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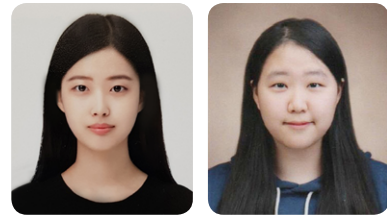
SECTION 2.

- 수상자
- 수상 작품집





대상



● Room in Room  
아주대학교 | 김유은, 박성전

금상



● LIVING IN BETWEEN  
공주대학교 | 이재명, 최혜린

장려상



● Co.W.Co  
경희대학교 | 신현준



● Creator Project  
경상국립대학교 | 김은경, 이수민



● 위로  
충남대학교 | 박찬화, 김재훈



● Plant ; 일상 속 특별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민지, 류지연

은상



● snCs  
이화여자대학교 | 홍수민, 황보경주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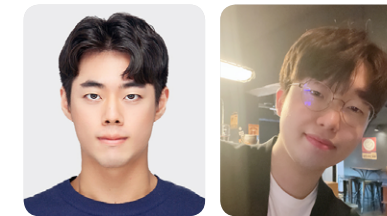
● 미로가  
아주대학교 | 이혜준, 손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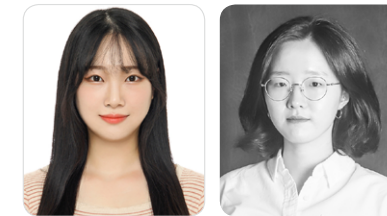
● H.H.H.HOUSE  
경북대학교 | 정예나, 박상희



● 우리 CC할래?  
부경대학교 | 박민용, 이재현



●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동아대학교 | 손준모, 한지훈



● +the village  
건국대 대학원 | 정예림, 이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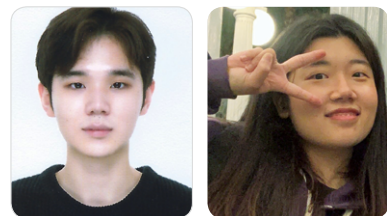


● 중앙에서 만난 이방인  
부경대학교 | 안연후, 김동경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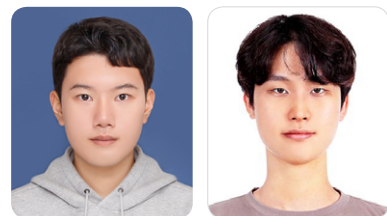
● 청년 상인 자람터  
연세대학교 | 최재원, 권용현



● coNsider  
홍익대학교 | 류영민, 양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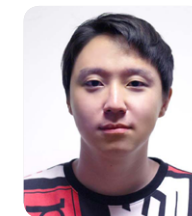
● Select your boundaries  
명지대학교 | 김윤중, 국민대학교 | 우정빈



● Take a 'Fo'rest  
홍익대학교 | 김선우, 강민협



● Studio In Connection  
목원대학교 | 염광희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충남대학교 | 김용현



● 사적보다 먼, 공적보다는 가까운  
아주대학교 | 이형민, 어윤범



# ROOM in ROOM

TEAM



김유은  
아주대학교



박성진  
아주대학교

INTRODUCTIO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Room in Room은 주변의 교육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및 학습을 지원하는 공유주택이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들의 1인 청년 가구를 함께 거주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두 주체의 공동생활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과 1인 청년 가구의 차별 없는 공유, 공감, 공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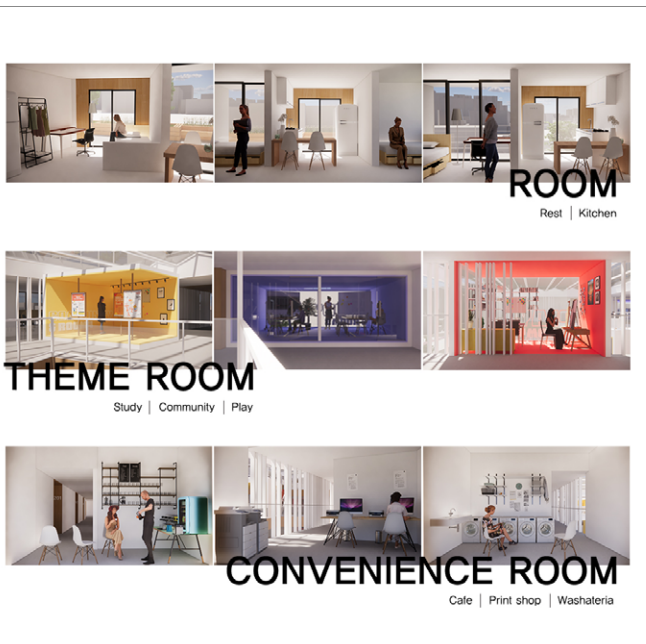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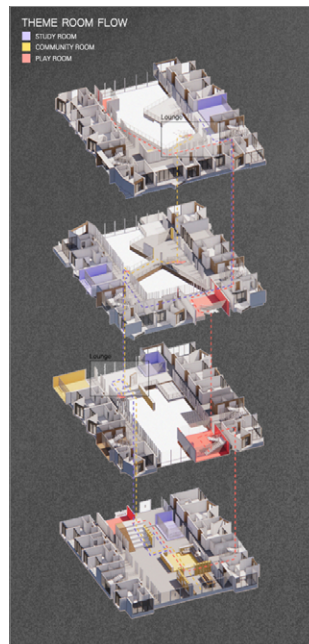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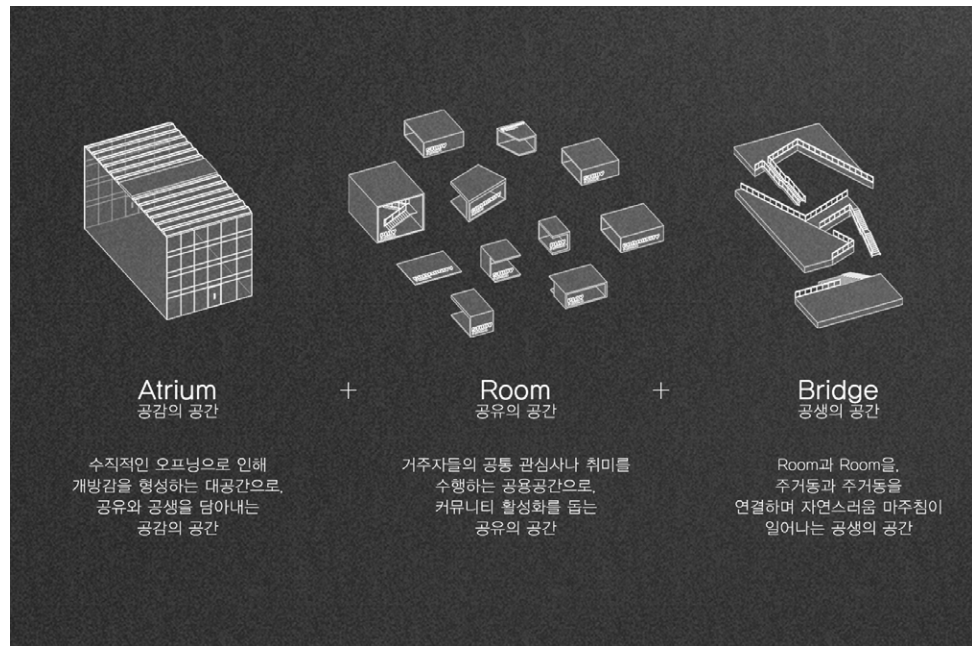
거주자들의 공통 관심사나 취미를 수행하는 공용공간 'Room',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의도한 공생의 공간 'Bridge', 수직적인 오프닝으로 공유와 공생 공간을 모두 담아내는 'Atrium'을 통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유, 공생의 활동을 포괄하고 결국 서로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집합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TERVIEW

**김유은** / 뛰어난 작품들 사이에서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던 건축에서 대학생 마지막을 이번 대상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 신기하기도 하고 매우 기쁩니다.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며 많은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 어려운 배움이었지만 대상을 받을 만큼 많이 성장했다고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또한 다른 것보다도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으로 사회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보람차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 저보다도 더 기뻐해주신 친구들, 교수님들, 학교, 지인들,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 우리 팀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의견충돌 없이 재밌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진** / 이번 프로젝트는 더욱 뜻깊게 작업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요즘에는 학교나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셔서 조금씩 이 상황을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저희가 팀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둘 다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공간을 위해서 고집을 부렸던 점들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동기들과 함께 수상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회적 약자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이 사안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의 제안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IVING IN BETWEEN

TEAM



이재명  
공주대학교



최혜린  
공주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청년 세대와 고령 세대를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1인 주거는 그동안에 나타난 가구 중심적인 주거 형태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세대융합형 주택을 통해 시니어의 경험의 가치를 청년들과 함께 소통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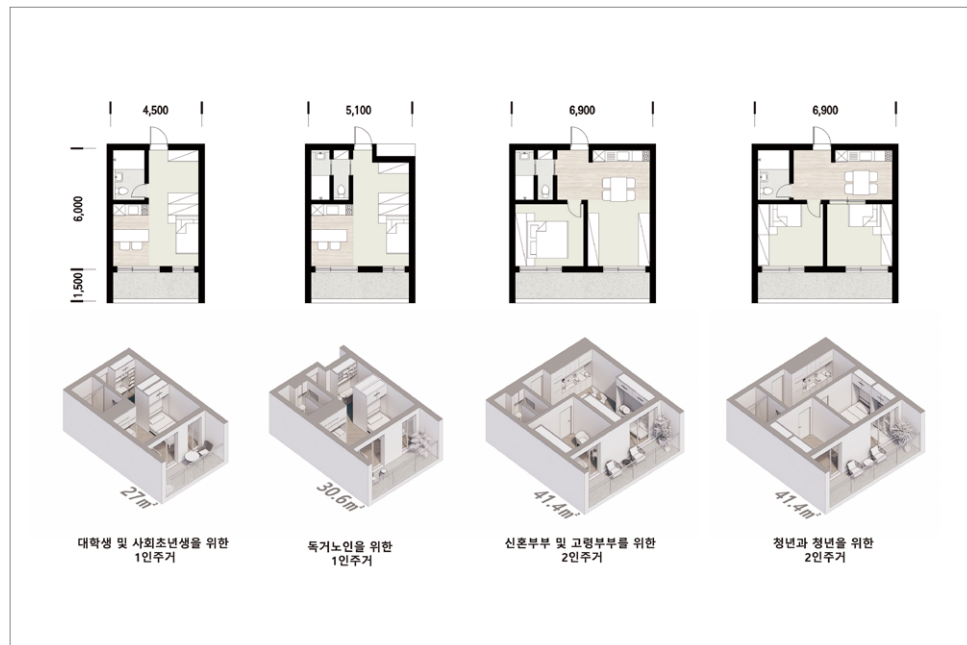
개인 공간에 모듈식의 가구들을 통해 공간에 가변성을 더하고, 각 층에 다채로운 테마의 알코브 공간을 두어 소통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정 · 알코브 · 테라스로 점차 확장되어가는 외부공간은 필요에 따라 놀이, 휴식, 이벤트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INTERVIEW

**이재명 /**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안에서 공유한다는 것,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건축학도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번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삶을 고민해 보았다. 그중 1인 가구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어떻게 삶을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생성하는 과정을 고민해 보았던 시간이었다.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나누면서 주택의 중요성을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가의 입장이 아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배경이 되는 건축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볼 것이다.

**최혜린 /** 최근 1인 가구로 변화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우리 사회 속 청년과 노인의 주거 문제와 연결 지어 세대융합형 주거 형태를 통해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코리빙이라는 주제에 공유, 공생,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져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함께한 분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저 또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주거형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 교수님, LH, 그리고 팀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snCs ; social networking Co-living service

TEAM



홍수민  
이화여자대학교



황보경주  
이화여자대학교

INTRODUCTION

급증하고 있는 1인 주거는 시간 공간적으로 쉽게 소외된다. 이로 인해 강한 모빌리티를 지니는 청년들은 주거가 아닌 외부 공간을 집처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을 유목민이라 정의하는 것에서 snCs 플랫폼이 시작되었다. 예로부터 유목민은 강길을 따라 움직이며 이동과 정착을 반복해왔다. 이들의 각 붓짐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포켓 공간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탐구된다. 특히, 자신의 붓짐을 공개하거나 이웃의 붓짐을 구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공간적 속도를 조절해나간다. 멈춰 있던 사이트에 적용될 다채로운 개성과 속도를 받아들이는 snCs 주거 플랫폼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속도를 소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ERVIEW

**홍수민 /** 과거의 열려 있는 현관은 들어와도 된다는 의미였으나, 현재, 택배를 받는 것도 꺼려지는 사적이자 공용 공간으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 공간적으로 소외되는 유목민에게 다시 붓짐인 현관 포켓 공간을 내어주어, 이를 공유한다면 강한 모빌리티를 지닌 이들 간의 '공감' 하는 코리빙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작은 스케일의 고민에서 구상하기 시작한 위 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수집을 통해 세심하게 이를 공간으로 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노마드족의 코리빙 플랫폼을 위 공모전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 주거 문화를 시각적으로 독특한 제안을 하고자, 실제 웹사이트의 구축을 동영상에 담아보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겪어 나간 과정과 다채로운 포켓 공간을 모형에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재료를 탐색해 본 과정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더 나아가, 건축을 공부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각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는 공유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이슈 등에 다시 고민해보며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황보경주 /** 코로나로 인해 섰다운된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바라고 필요로 하는 주거 공간이 무엇일까? 하루 살기, 한 달 살기의 유행이 이러한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였고, 여기서 공모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공동주택은 유닛이라는 작은 스케일부터 도시라는 큰 스케일까지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의 사회 현상에서 시작하여 그에 반응하는 주거 공동체라는 스토리의 완결을 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최종 발표까지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감사했고, 다양한 시각에서 코리빙을 다룬 작품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처음으로 동영상 방식으로 작품을 표현해보았는데, 상상하던 공동주택의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 좋았으며,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각자의 집을 메고 유목민처럼 이동하는 청년들은 어떠한 공간에서 만나게 될까요?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오프라인 sns 거주 플랫폼  
offline social networking Coliving service (snCs) platform

자신의 붓짐을 들고 이야기를 공유하다

snCs 플랫폼은 도시를 유랑하는 이들을 위한 오프라인 sns 거주 네트워크로, 유목민들은 언뜻무연사가 되어 이 곳에서 다른 이들의 다채로운 일상들을 가까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자신을 표현할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72 m<sup>2</sup> + a

포켓공간을 통한 옷장 공유와 수납공간 확보는 유목민의 개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성을 유도합니다.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이 노마드의 길은 고립된 위치의 snCs가 자급자족하는 수단이자 유목민 공동체가 지역에 스며들도록 하는 매개공간입니다.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상업 메스와 주거 메스 위로 포터블 주거 메스를 얹어 함께 살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추상복합 공동유거를 계획하였습니다.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이처럼 테라스 공용 거점을 형성하여, 다채로운 경관이 가능한 현관 및 복도의 작은 거점들을 이어 자연스러운 스침이 가능한 거점이 확보됩니다.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snCs는 유목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다들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주거 플랫폼입니다.

0.25 5 10 3층 평면도

snCs ABOUT SITE TOGETHER TOUR

여러분과 함께 snCs에 이야기를 팔아가고자 합니다.

동상 미로가

TEAM



이혜준  
아주대학교



손은지  
아주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미로가는 지역문화, 가치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모여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노후화와 프랜차이즈의 입점으로 정체성을 잃고 있는 대명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코리빙을 제안한다. 상업시설,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의 공유 프로그램, 단지 내부 거주 로컬크리에이터 간의 공유 프로그램과 주거의 복합화로 로컬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이웃을 엮어주는 4가지 유형의 공유공간을 통해 일상 속에서 어울림의 장소를 제공한다. 거주민들은 일상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핵심이 되어 로컬 크리에이터 간, 지역주민 간의 공유로 공동체가 확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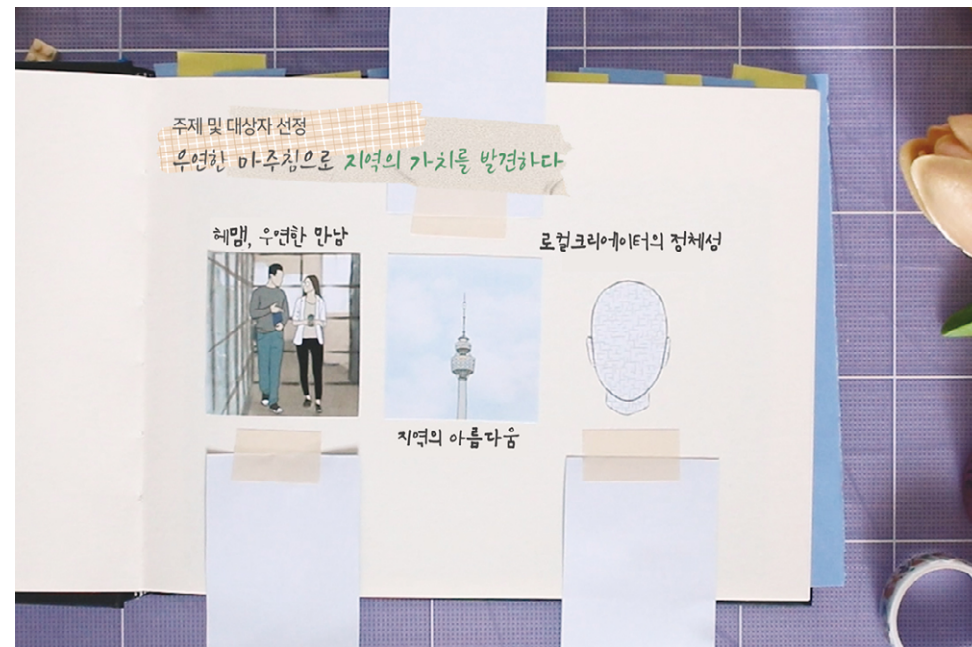


INTERVIEW

**이혜준** / 팬데믹으로 함께 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많았던 2021년, LH 대학생 주택 공모전에 참가해 팀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단조로웠던 학창 시절에 즐거운 추억이 한 가지 더 늘게 되어 기쁩니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웃과 공감하며,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삶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담은 집에서 살고 싶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축적으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결실 또한 좋아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신 부모님, 동생들, 친구들에게 고마워요! 무엇보다 함께 한 은지에게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손은지** / LH 주택 공모전을 통해 Co-Living이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주거를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함께 한 팀원 혜준 언니와 2달간 많은 시간을 지내며 서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웃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2달 동안 거의 매일을 하루 종일 얼굴을 보며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순간순간의 태도에서 툭툭 거림이 있었을 텐데 언니와 함께였기 때문에 이해받으며 힘내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받아 더욱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끝까지 힘내 준 언니에게 정말 고마웠고 즐거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우리가 지쳐갈 때 옆에서 응원해 준 언니와 저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상 H.H.H.HOUSE

TEAM



정 예 나  
경북대학교



박 상 희  
경북대학교

INTRODUCTIO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공유주방산업은 주방설비 및 요식업 데이터 등의 자원들을 동원해 외식업 창업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COVID-19로 인한 배달문화의 확산과 맞물려, 민간 공유주방 산업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트 인근의 특색있는 먹거리골목들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 및 주민들을 고려하여 ‘음식, 요리’ 라는 공통된 목적에 부합하는 거주민들을 타겟으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골목길들을 형성하고, 저층부에 카페와 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여 대명동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닛들을 제안하여 대지 환경에 맞는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주거동 사이에 ‘주방 플랫폼’ 및 ‘야외테라스’ 로 이루어진 브릿지를 구축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코리빙을 통해 ‘음식, 요리’ 라는 관심사의 공통점을 가진 거주민들간에, 그리고 거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INTERVIEW

**정 예 나** /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LH 대학생주택대전의 주제인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에 맞는 공유,공감하는 주거 공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HOUSE, KITCHEN, HUB를 담은 ‘H.H.H HOUSE’ 입니다. 이번 영상제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저희도 만족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을 받게 된다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동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다른 수상작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들을 보며, 단순 공모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그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박 상 희** / 제25회 LH대학생건축대전에 참여하며 다른 우수한 작품들 사이에서 상을 받았다는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영상이라는 포맷으로 저희가 설계한 공간에 대해 보여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공부가 되었고 앞으로의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사이트가 전국적으로 있어 가장 가까우면서도 익숙한 대구를 선정하여 설계를 진행했지만 만약 다른 곳을 골랐다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거 공간’ 은 여전히 생각해야할 것이 많은 설계주제이지만 팀원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고민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수상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청년 상인 자람터

TEAM



최재원  
연세대학교



권용현  
연세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우리는. 자란다. 시장과. 함께.

청년 상인 자람터는 대상지 주민들이 겪은 사회, 역사적 비극에 공감하고, 지역 기반 산업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석남동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다. 특히 주변 대지 현황과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기존 주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단절 극복과 확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상인 자람터는 두 개념들을 프로그램과 건축적 해법 두 가지 층위에서 표현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존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TF팀과 이를 통한 자생적 커뮤니티의 순환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변 상황에 대응하는 매스와 모듈화된 각종 시설들을 설계하였다. 이런 건축적 그리고 프로그램적 해결책은 건물 안에서 작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대지,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융합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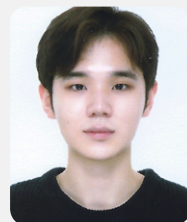


**건축개요**

명칭 - 청년상인 자람터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2,224㎡  
 도로현황 - 동측과 남측 왕복 2차선 / 서측 일방도로 접함  
 건축면적 - 1,333.3㎡  
 건폐율 - 59.9%  
 연면적 - 5,145.3㎡  
 용적률 - 231.3%  
 세대수 - 49세대 (7평, 23.38㎡)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 지하3층 / 지상 7층  
 최고높이 - 23.8m  
 외부마감 - 플라스터 / 루이복층유리  
 주차개요 - 총 85대(장애인 주차 6대)

장려상 coNsider

TEAM



류영민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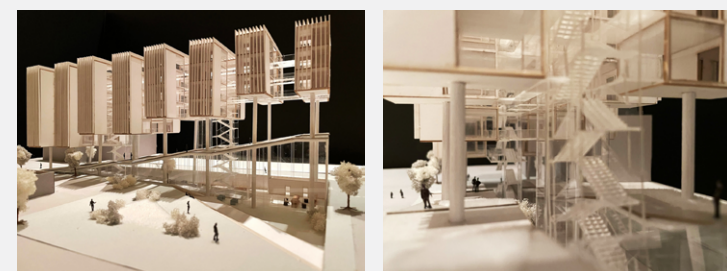


양지운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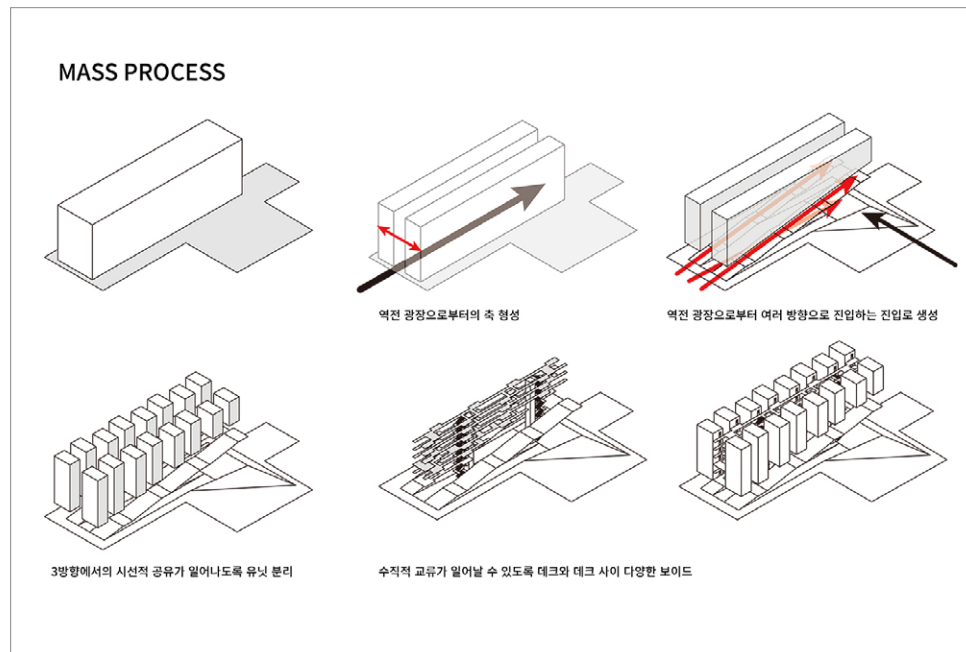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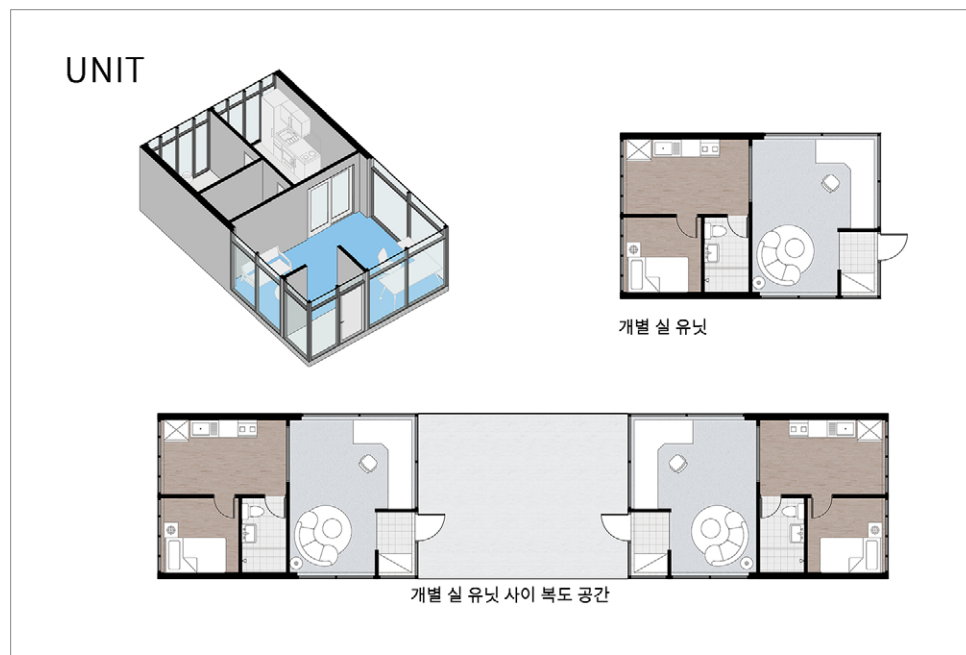
INTRODUCTION

우리는 현재 SNS나 그 외 미디어 플랫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개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개인의 가치가 점점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우리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나'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한다. 요즘 시대 광고나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캐'도 이러한 문화적 현상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단지 광고나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춘 공간을 고안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coNsider  
side project를 중심으로한  
co living space 계획안





# Select your boundaries

TEAM



김윤중  
명지대학교



우정빈  
국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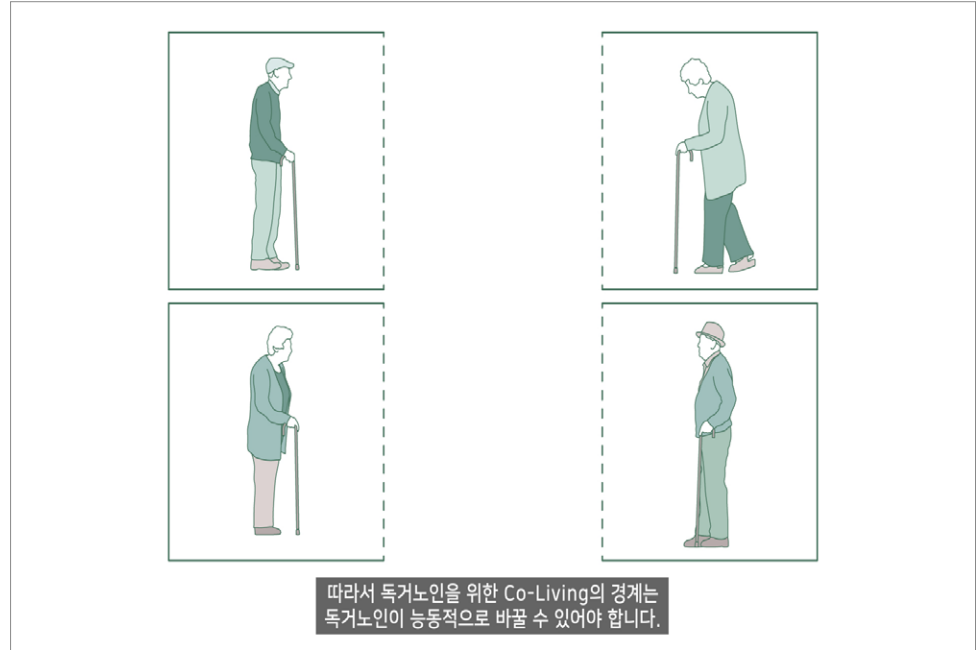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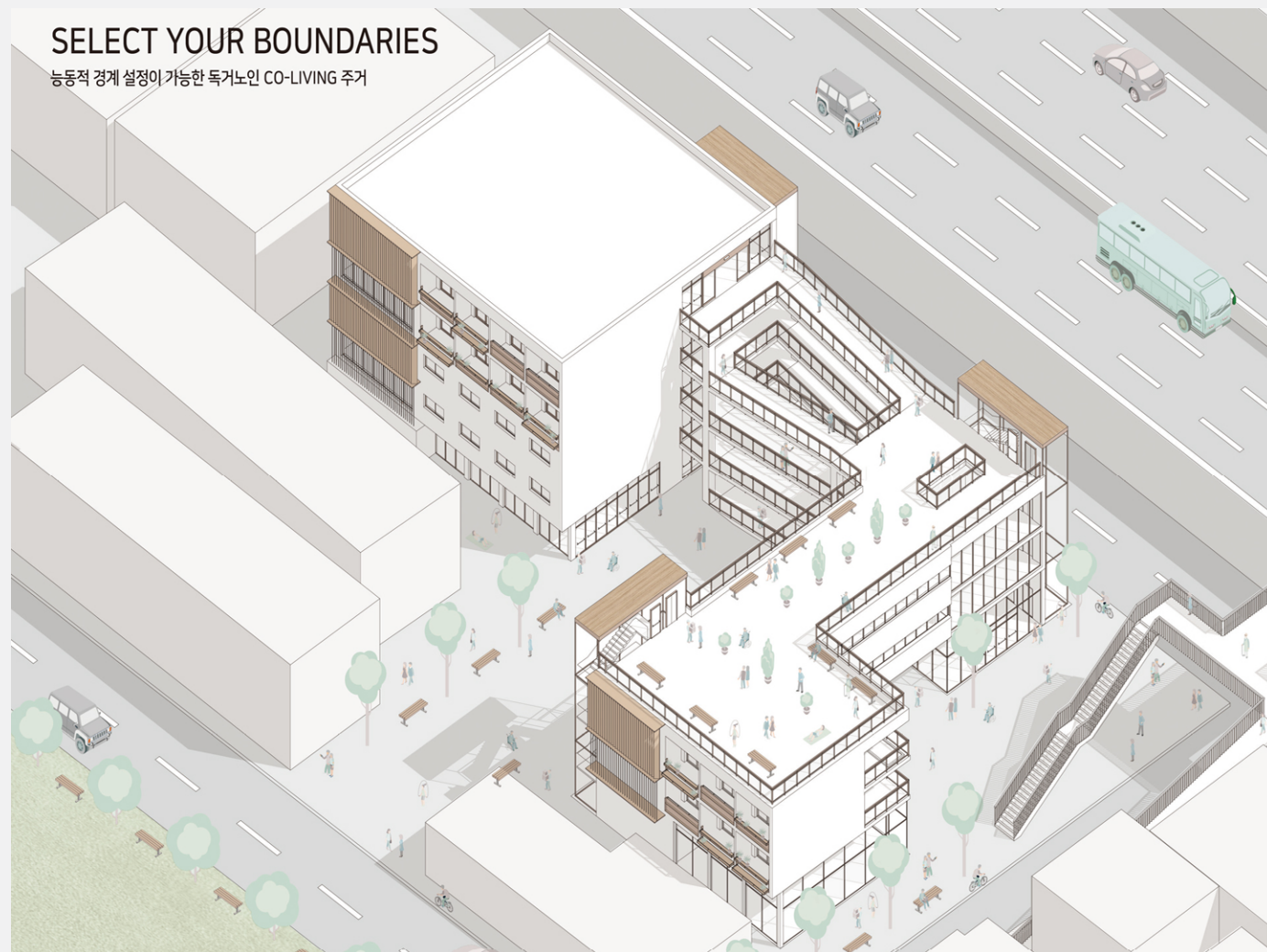
INTRODUCTION

기존의 현대주거는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있는 사적인 공간이다. 독거노인은 경계에서 나와 공원, 노인관련 시설 등 경계가 없는 공적인 공간으로 향한다.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들은 정해진 경계 속에서 매일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수동적인 삶은 타인과의 교류를 차단해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반면 능동적인 삶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코리빙은 정해진 경계가 아닌 거주자가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계가 주어져야한다. 거주자의 능동적인 경계 변화는 코리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 Take a 'Fo'rest

TEAM



김 선 우  
홍익대학교



강 민 협  
홍익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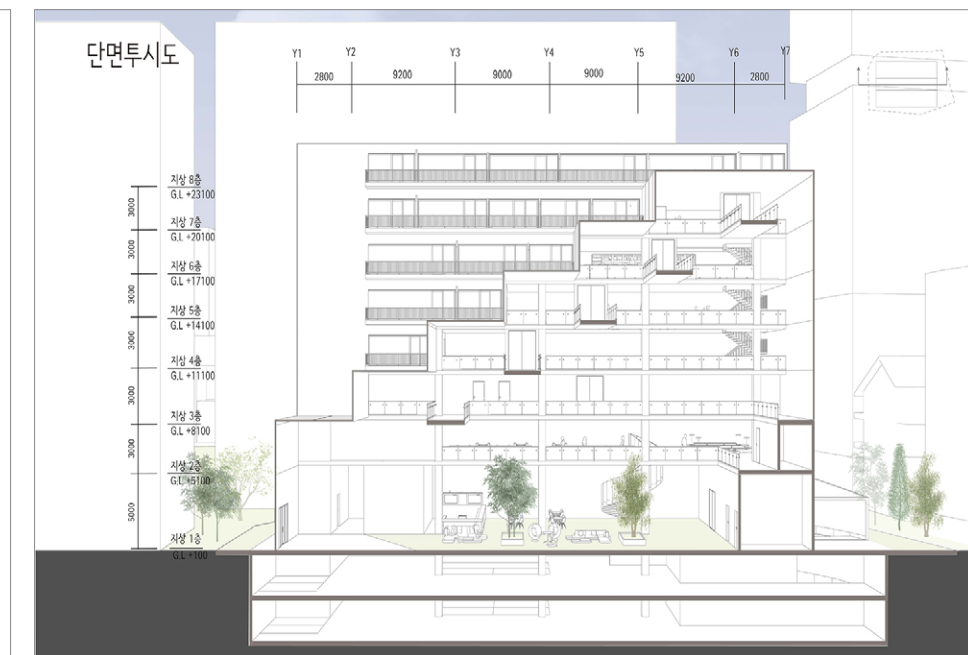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높은 빌딩숲 사이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휴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을 해소해주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 대지 안에 다양한 스케일과 방법을 이용하여 녹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실거주자인 20-30대의 사회초년생을 고려하여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type A, 커플 혹은 신혼부부를 위한 type B, 아이가 있는 가족(3인)을 위한 type C 이렇게 세 개의 모듈을 만들었다.

우리는 초록 빛의 자연보다 회색 빛의 콘크리트가 더 익숙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제안하는 이 건물은 젊은 거주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식처가 되어 주길 바라본다.





Co.W.Co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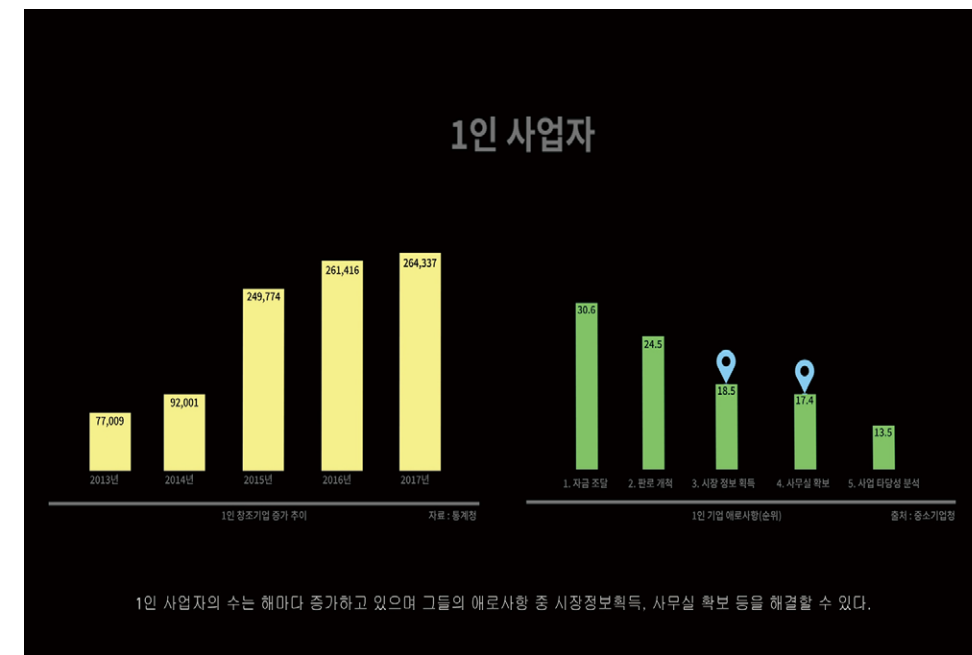
신 현 준  
경희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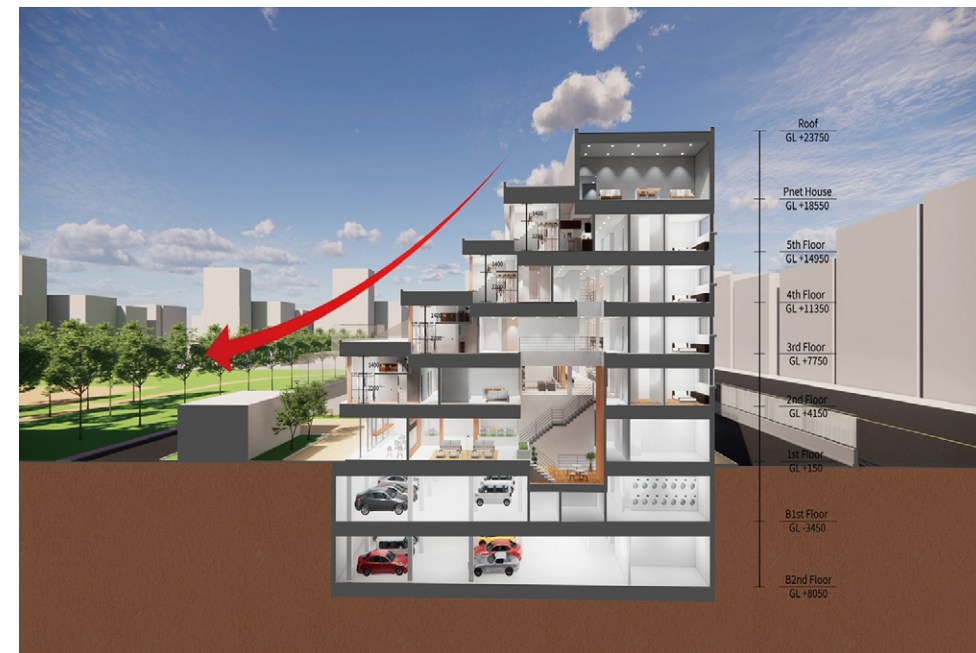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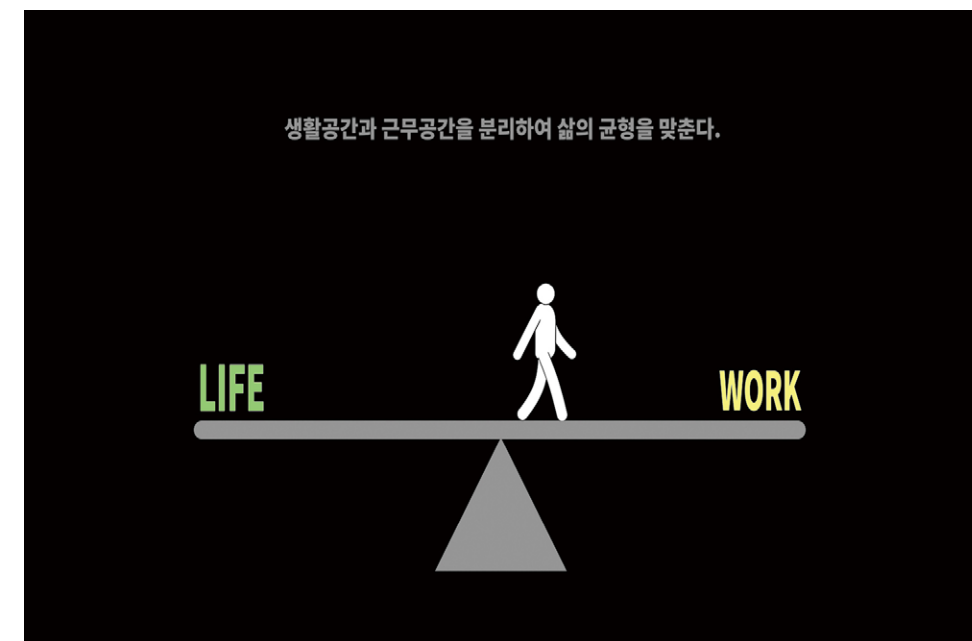


INTRODUCTION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의 도래는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자유로운 방식의 사업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1인 사업자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마다 증가하는 1인 사업자들이 함께 살아가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 근무공간과 거주공간, 두 가지 다른 성격을 지닌 공간들을 하나의 건물 속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Work & Life가 모여 있는 공간은 그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단식 매스형태'를 제안한다. 이러한 외부 공간은 거주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답답함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1인 사업자들의 Work & Life Balance를 충족시켜주며 나아가 경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인 사업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애로사항 중 시장정보획득, 사무실 확보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장려상** Creator Project

TEAM



김은경  
경상국립대학교



이수민  
경상국립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기존의 주거 형태와 달리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주거방식을 제시한다. 현대인에게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것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크리에이터라는 신직업도 탄생했다. 이제 Z세대에게 1인 크리에이터는 선망의 대상이자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의 위한 주거공간을 계획하였고, 그들은 이곳에서 서로 소통하며 더 성장할 것이다. 크리에이터의 특징은 일반인이지만 보여지는 직업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의 구분이 모호해 지기도 한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ON&OFF라는 컨셉을 제안한다. 공적공유공간인 ON은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소통한다.



UNIT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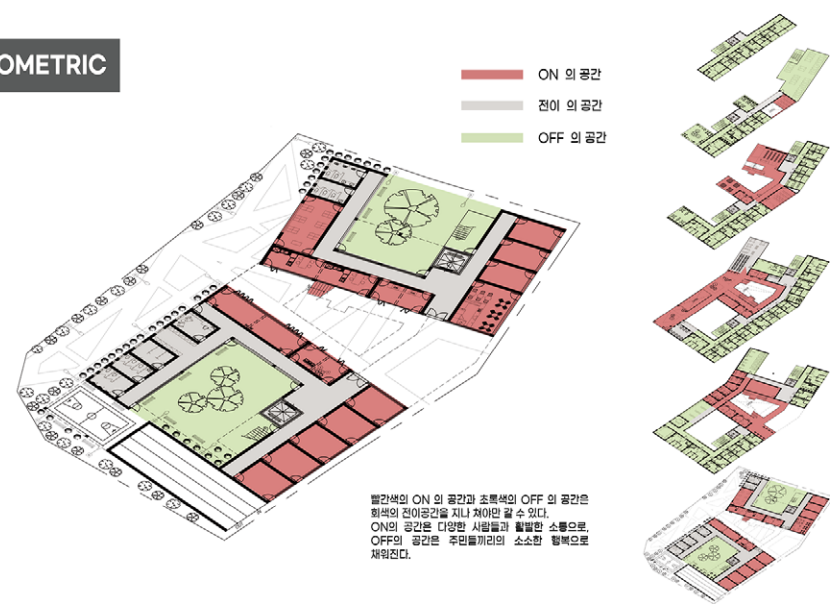
2인 일반형	2인 스튜디오	1인 일반형	1인 일반형
5 X 7 M <sup>2</sup>	5 X 7 M <sup>2</sup>	5 X 3.5 M <sup>2</sup>	5 X 3.5 M <sup>2</sup>
5 세대	5 세대	21 세대	20 세대

2인 유닛을 가리고 있는 벽은 기변형 벽으로, 2인 타입 유닛을 선택하였을 때 개인 공간의 확보와 공유 공간의 확장을 결정할 수 있다.



ISOMETRIC

- ON 의 공간
- 전이 의 공간
- OFF 의 공간



빨간색의 ON 의 공간과 초록색의 OFF 의 공간은 하나의 전이공간을 지니지만 갈 수 있다. ON의 공간은 다양한 생활과 활동이 가능하며, OFF의 공간은 주민들끼리의 소통과 행복으로 채워진다.



장려상 위로

TEAM



박찬화  
충남대학교

김재훈  
충남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갑작스럽게 엄마가 되어버린 학생들은 더는 학교에 나갈 수 없다. 준비 없이 생계 전선으로 내몰린 젊은 엄마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된다. 이런 미혼모를 위한 주거시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각 동의 남측엔 주거유닛을 배치하였고 동측과 서측에는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배치하여 주거유닛에 최대한 많은 채광을 확보했다. 채광에 불리한 가운데 동의 1층은 공간을 비워 유아를 위한 놀이터로 활용하였다. 완만한 정상의 옥상정원은 옥상을 하나로 이어 실제로 산책이 가능한 커뮤니티 옥상으로 만들었다. 코리빙 스페이스 거주자만 이용 가능한 옥상정원은 한 부모 가정의 사회적 편견이나 부담스러운 시선에서 벗어나 편히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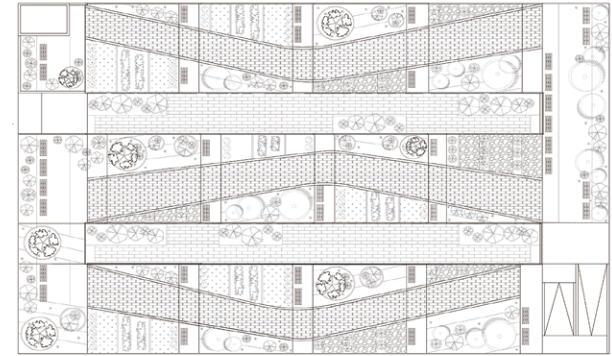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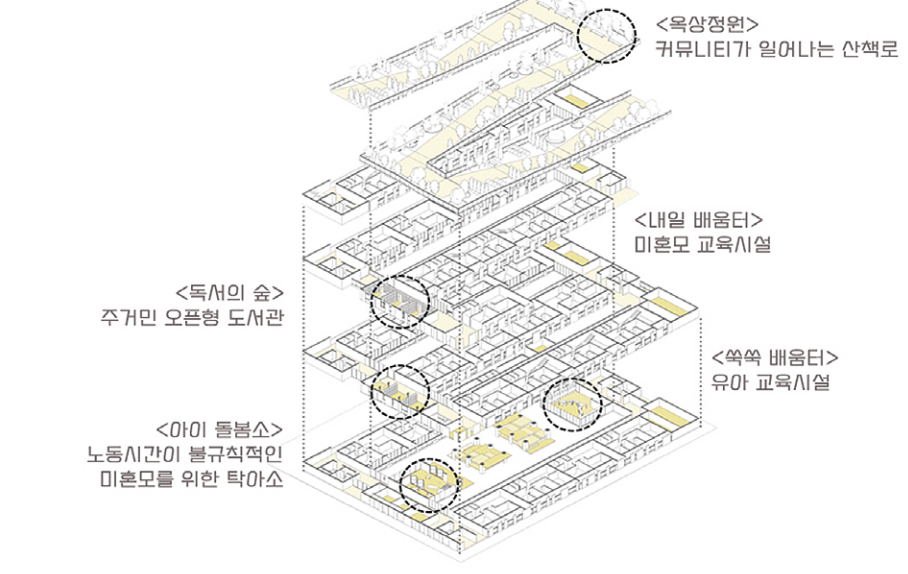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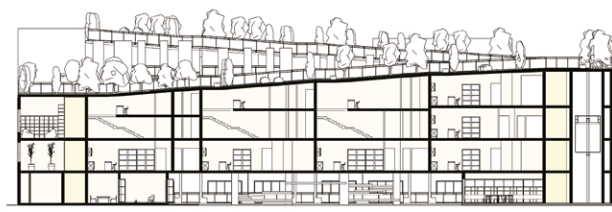
1. 홀로 한 생명을 키워내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
2.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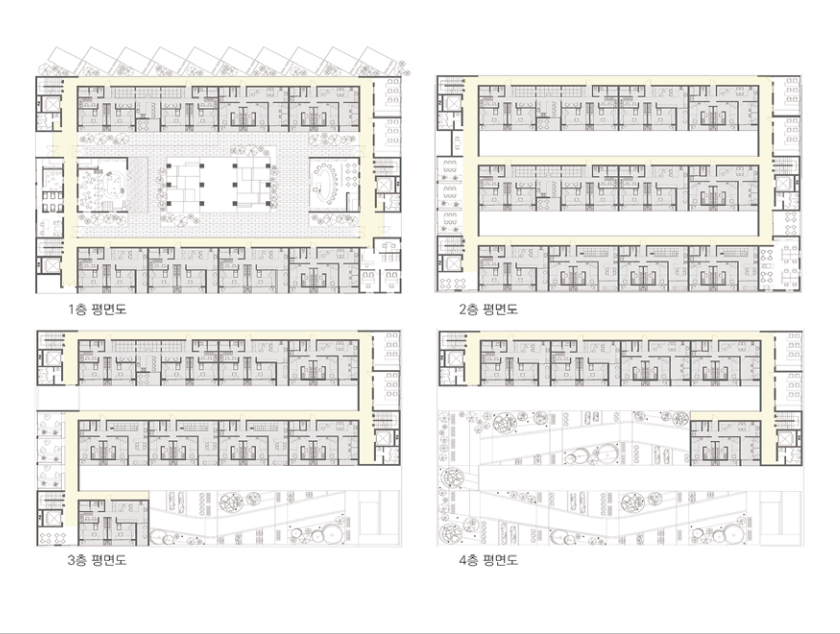
PROGRAM DIAGRAM



배치도  
채광확보를 위해 경사가 생긴 건물의 옥상은 산책실터로 사용해 주거민들이 옥상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아이와의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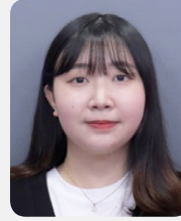
단면도  
수직적인 커뮤니티와 복층 주거유닛을 통해 공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활용했다.





Plant ; 일상 속 특별함

TEAM



강민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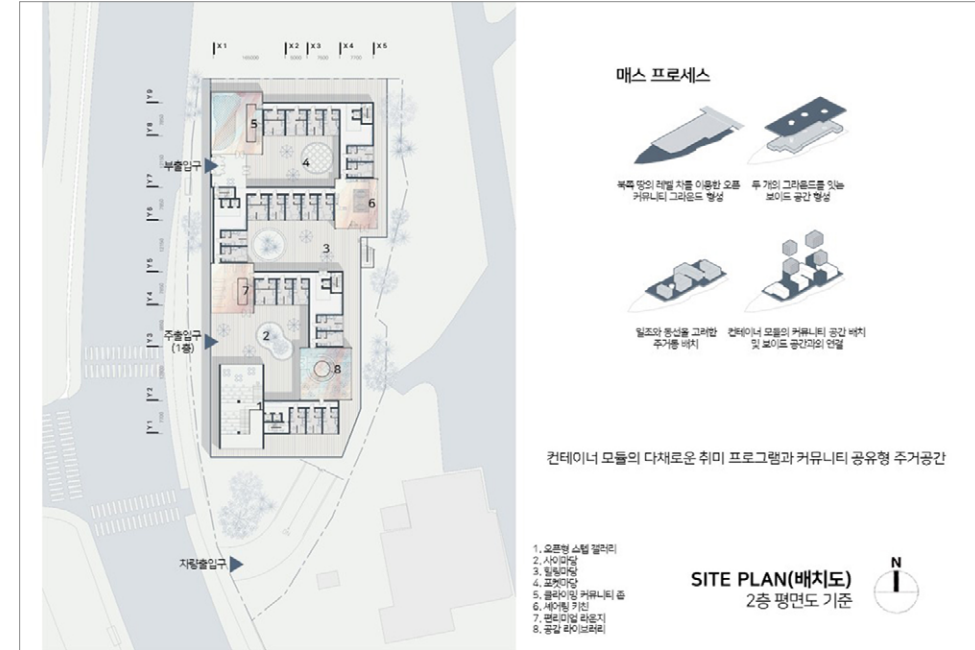


INTRODUCTION

혼자이고 싶지만 외로운 것을 싫어하는 MZ 세대들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거주민 들은 취미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거공간과는 분리시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공간을 구축하는데 경제적이라는 강점을 지닌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공간 프로그램이 가변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거주자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취미생활을 공유함으로써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Plant ; 일상 속 특별함





# 우리 CC(Campus Co-living)할래?

TEAM



박민용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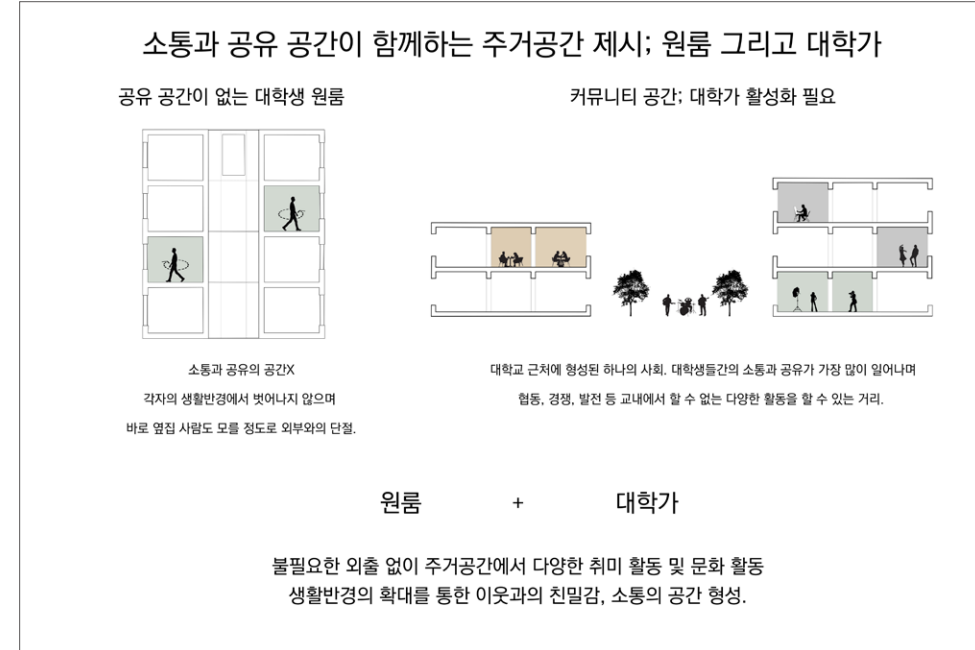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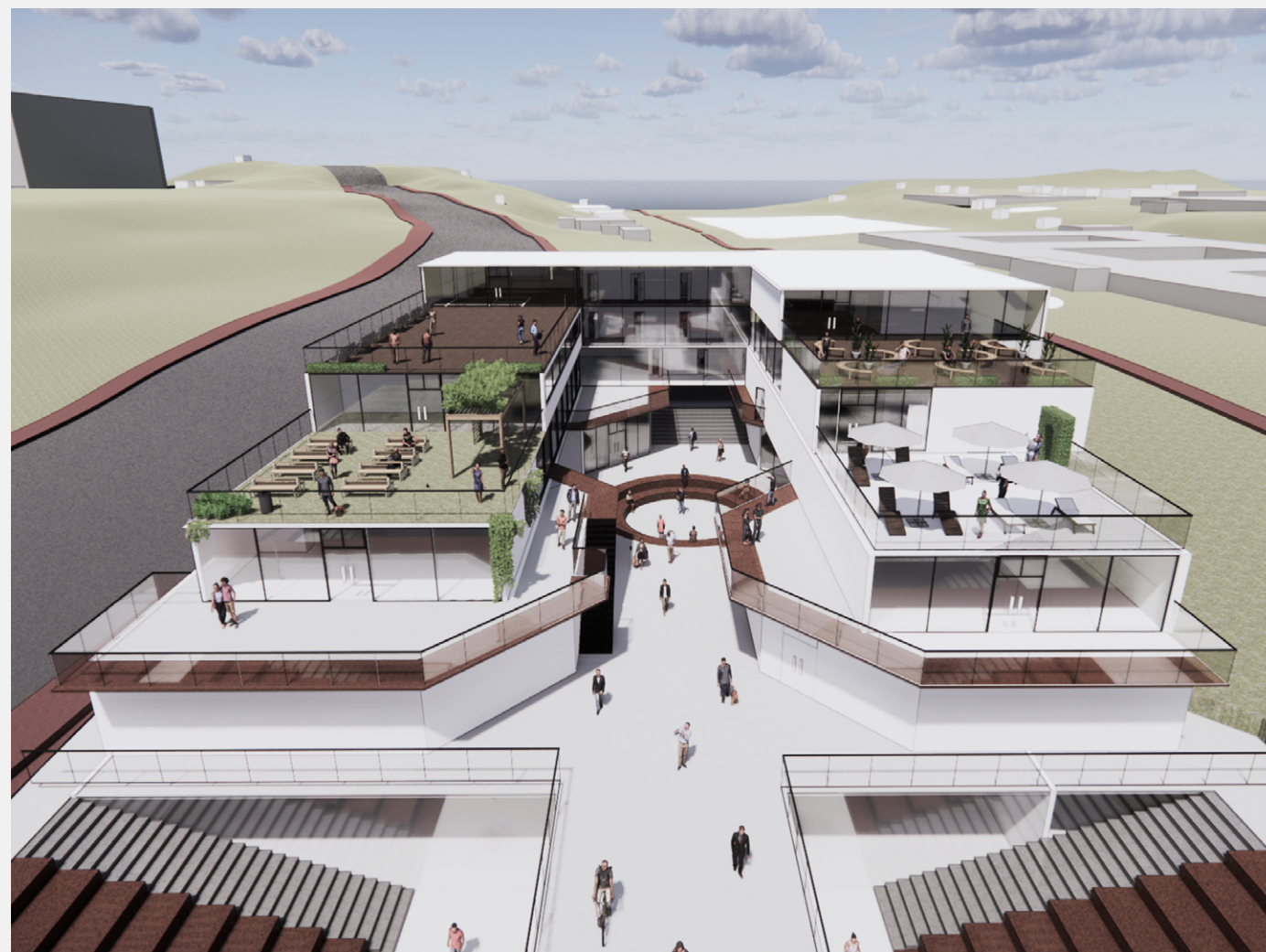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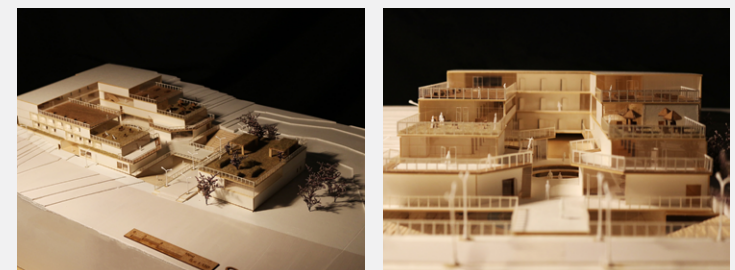
이재현  
부경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은 주변에 대학교가 밀집해있는 대지였기에 유동 인구의 대다수는 대학생이었다. 우리는 원룸과 대학가의 장단점을 서로 융합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대학생들의 등교, 귀가 길에 접하게 되는 거리와 복도 등이 단순한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채롭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이 건축물, 이 공간 자체가 그들에게 작지만 클 수도 있는 하나의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TEAM



손준모  
동아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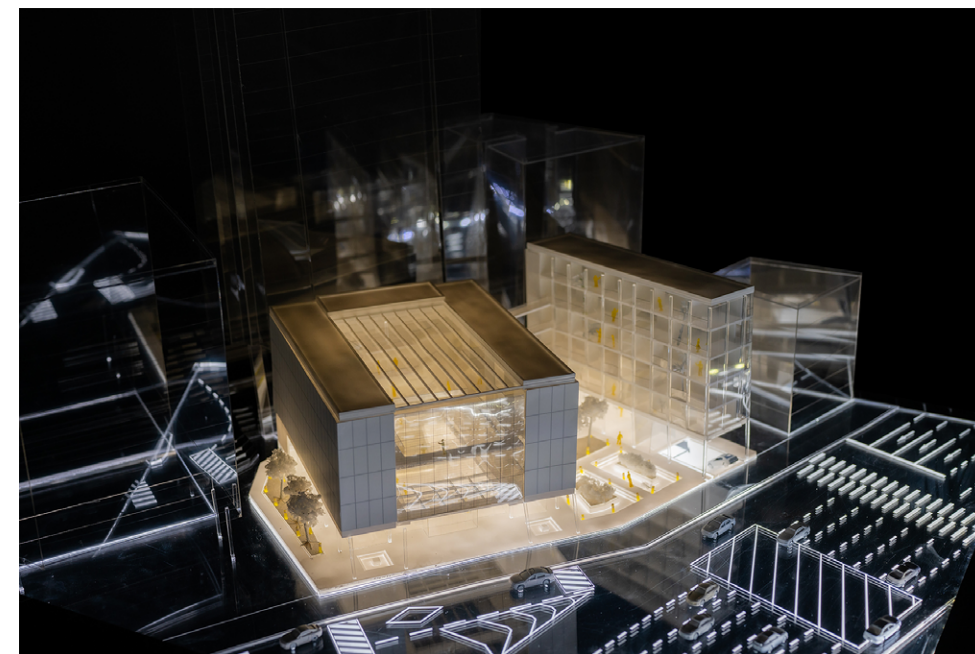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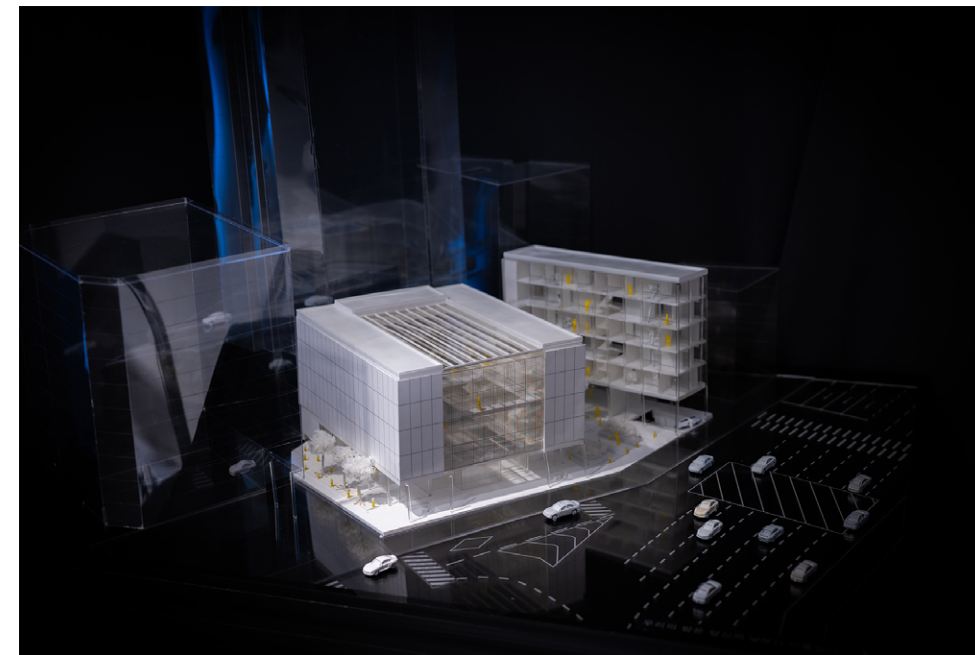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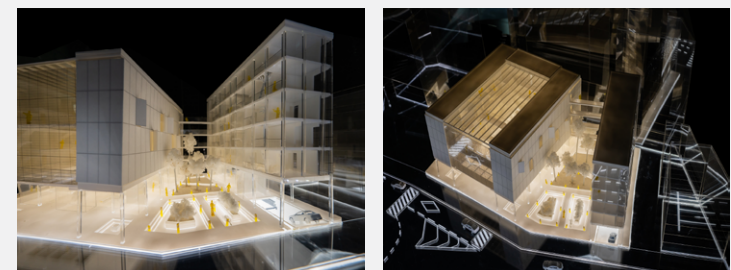
한지훈  
동아대학교

INTRODUCTIO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과거의 대한민국에는 야간통행금지가 있었을 정도로 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런 사회적 통념이 이어져 밤에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게다가 밤에 대한 인프라가 늘어나면서 야간 시설의 발전은 있었지만, “밤의 주거”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 이 작품은 밤의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취미나 직업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더욱 큰 범주로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해당 대상지에는 소방관, 간호사, 기차 승무원, 대학생, 자영업자 같은 올빼미족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 중앙대로라는 강력한 축의 유일한 커브구간에 있는 대상지에 이들을 위한 ‘밤의 등대’가 되고자 했다.



**장려상** +the village

TEAM



정 예 립  
건국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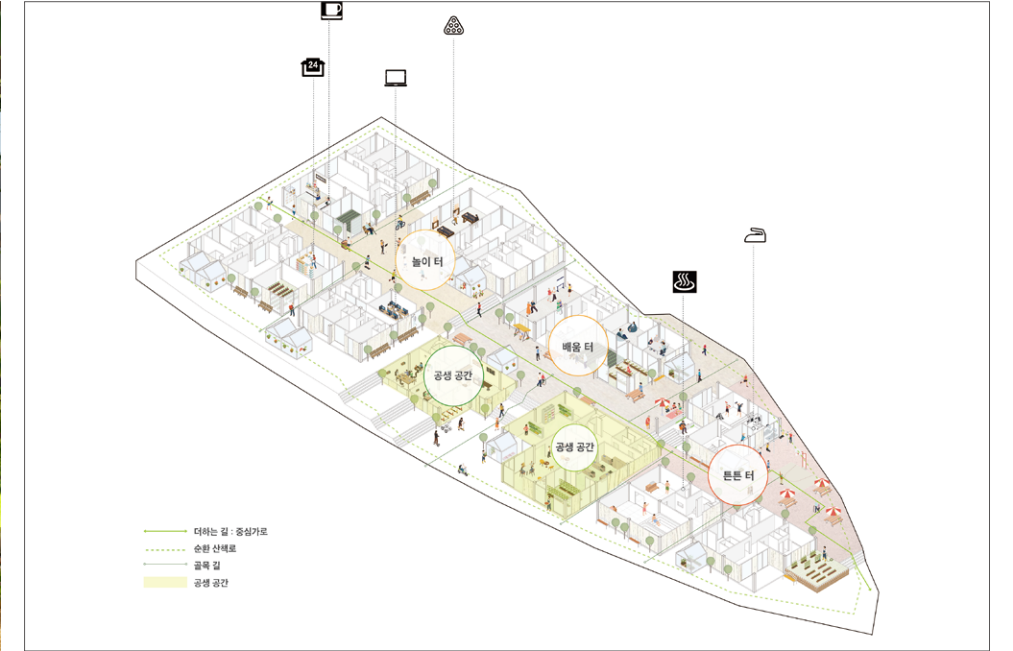
이 정 민  
건국대 대학원

INTRODUCTIO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2030 청년과 시니어층은 현대사회에서 접점이 줄어들었지만, 주거테마인 도시농업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필요한 경제활동과 일거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더 빌리지는 안정적인 주거와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 각기 다른 세대의 1인 가구들이 모여 만드는 공간이다. 모듈 패널리라이징 기법의 구조는 지속 가능성을 더하고, 도시 농업으로 경제성을 갖는다. 주거는 세대 공감의 장이될 것이며 서로 소통하고 선택하며 변화하는 공간에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중앙에서 만난 이방인

TEAM



안연후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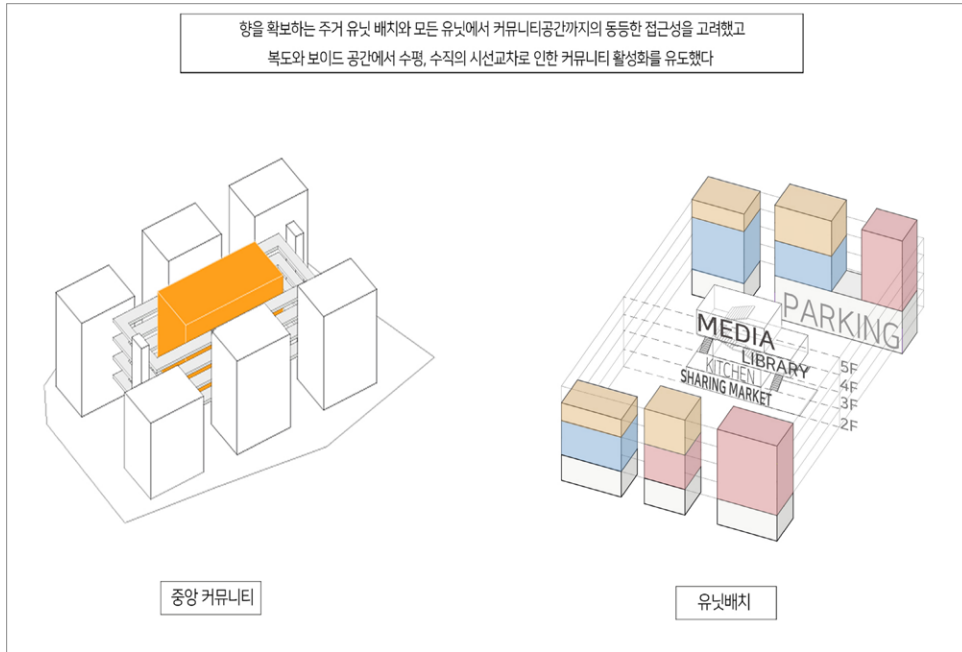
김동경  
부경대학교

INTRODUCTION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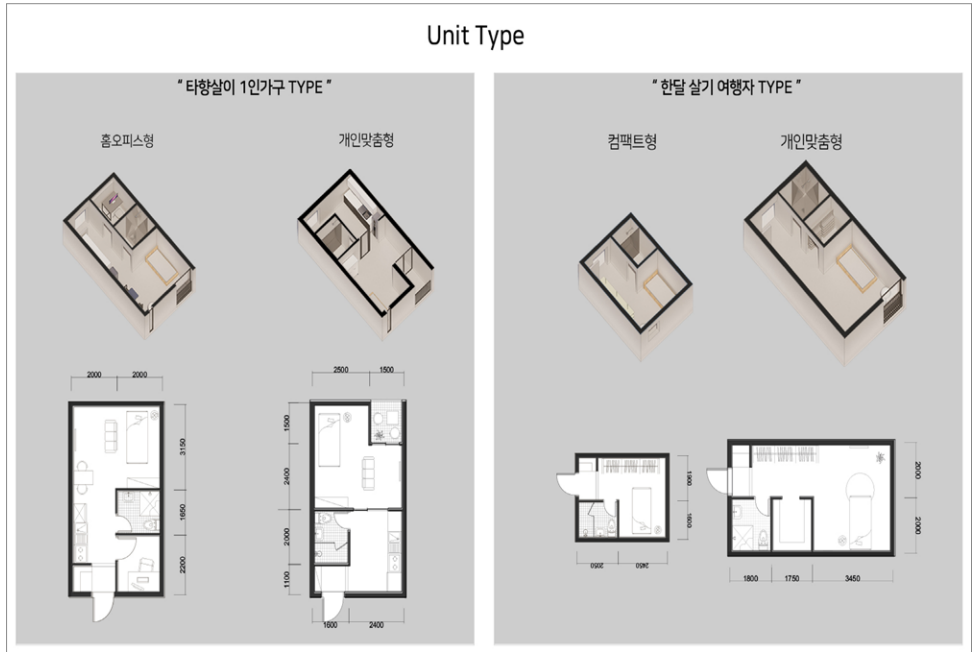


중앙에서 만난 이방인은 학업과 직장 생활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다. 한달살기 여행객과 타향살이 1인주거, 이 두가지 유형의 공존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발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물건들을 공유하거나 심리적인 공감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며, 달라지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류가 생겨난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타향살이 1인가구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타지생활에 적응해 나갈 것이고, 한달살이 여행객들은 더 풍부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



타향살이 1인가구	한달살기 여행객
타지에서 혼자 사니 외로워요	더 알찬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싶어요	한달살기를 하다보니 사진 애매한 물건들이 많아요
고민을 털어놓을수 있는 느슨한 사이가 필요해요	현지인들의 맛집이 궁금해요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받고싶어요	맨날 혼자 밥을 먹기가 외로워요
...	...
거주의 목적과 형태가 다르기에 타향살이 1인 가구와 한달살기 여행객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행객들은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관계들이 생성된다	
중앙 커뮤니티 공간은 이러한 관계들을 현실로 엮어내는 공간으로써 존재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며 타지생활에 적응하고	
한달살이 여행객들은 더욱 풍부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며	
이는 1인가구의 고립을 막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에서 만난 이방인**





# Studio In Connection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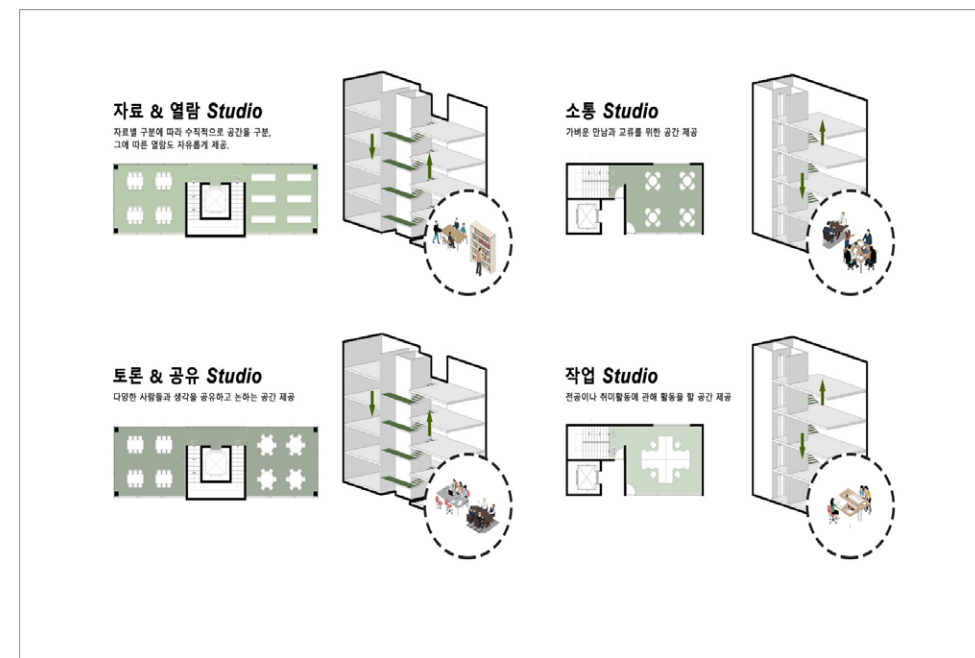
엄 광 희  
목원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 INTRODUCTION

현재 사회는 도시집중현상으로 많은 인구가 모이고 있다. 하지만 1인의 생활과 주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과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다수의 사람과 공유와 교류는 적어지며 단절은 증가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단절이 증가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공유와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주거와 연결이 된다면 더 가깝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는 존중을 받아야하기에 강요되는 공간과 환경보다는 그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공유와 교류를 하도록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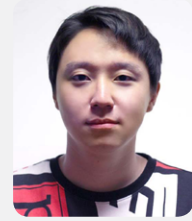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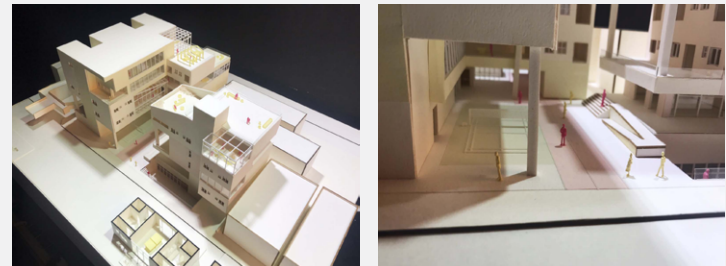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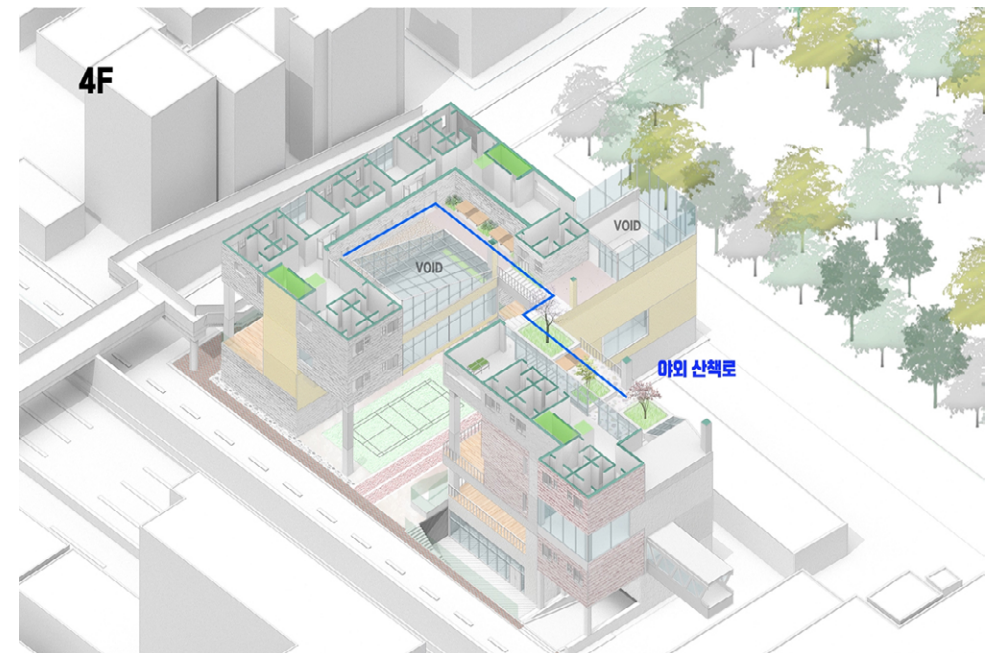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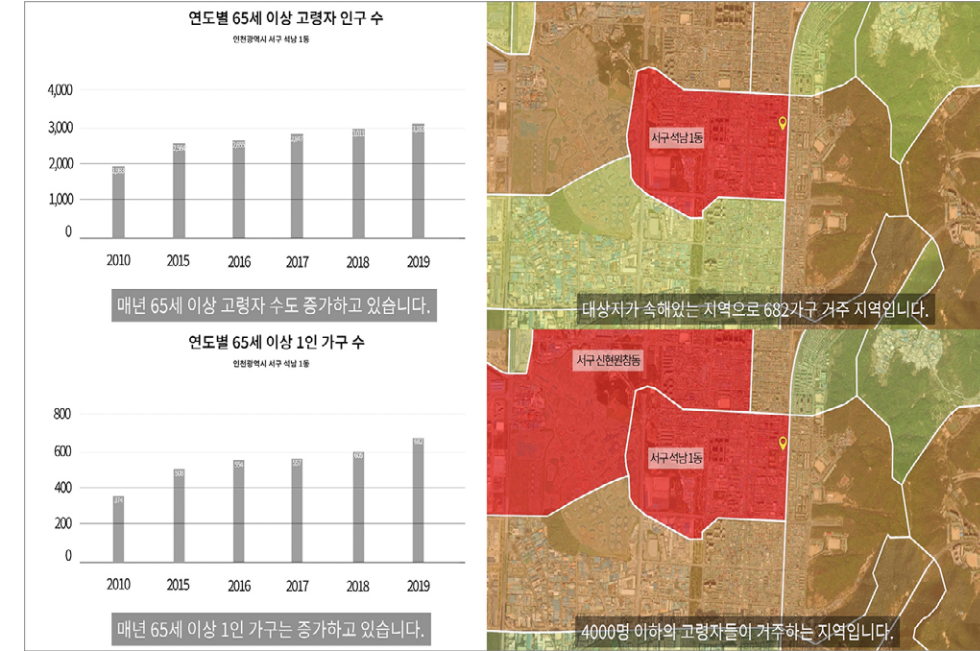
김용현  
충남대학교

INTRODUCTION

국내의 노인 인구와 노인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의 지원,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주거공간과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미 활동인 스포츠를 결합해 새로운 공간을 제안하려고 한다.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시각적으로 연결했고, 수직적으로 연결했다. 또한 매층마다 마을의 정자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통해 노인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대지 내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스포츠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세대의 상호작용으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 사적보다 먼, 공적보다는 가까운

TEAM



이형민  
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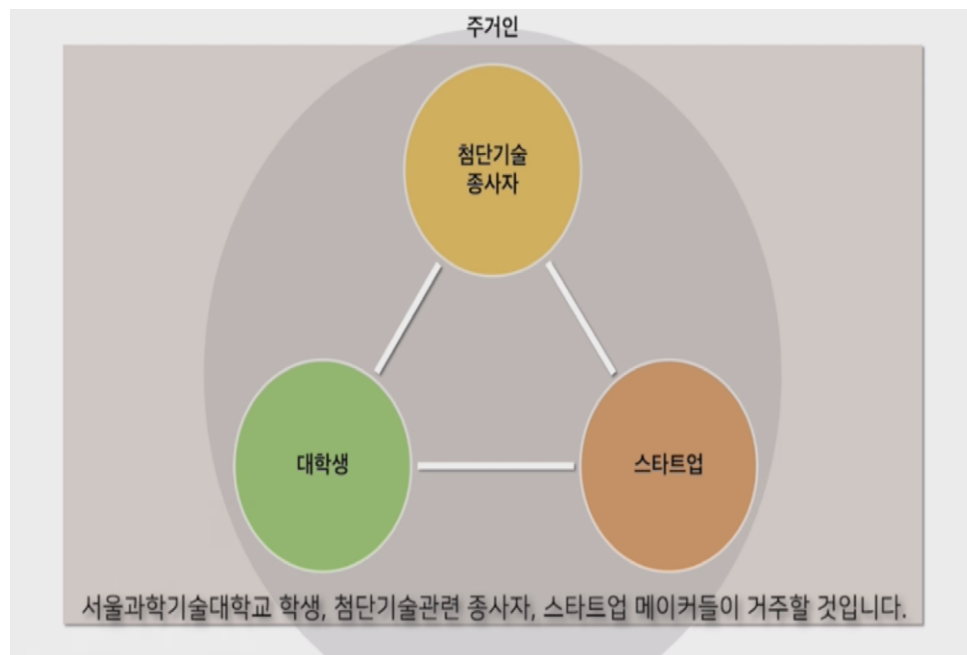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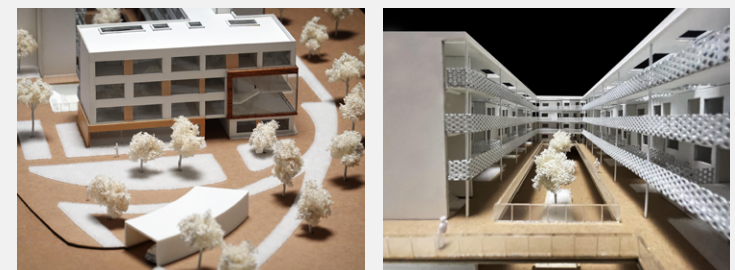
어윤범  
아주대학교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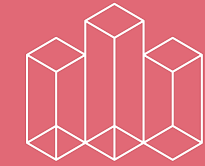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점차 늘어나고,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메이커' 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메이커의 협업과 교류를 공간 효율과 함께 일상 속 자연스러운 마주침으로 의도했고, 복도공간의 변형으로 이를 풀어냈다. 주거와 복도 사이에 '사적보다 먼 공적보다는 가까운' 레이어가 추가되며 이는 개인 테라스로 활용된다. 개인 테라스와 복도가 결합되어 공중가도가 되며 이 곳에서 메이커들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진다. 주거 유닛 사이에는 다양한 분야의 공유 오피스가 위치하여 함께 협업하고, 선큰 광장에서는 모든 분야의 메이커, 그리고 외부 메이커들의 전시, 강연 등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공유 장비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보며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다.



# 2021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 GALLERY



*SECTION 3.*

● 갤러리





## 제25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공감하는 주거 : Co-living  
- 공유, 공생, 공감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

---

발간일	2021. 12
발간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펴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기술처	처장 이택훈 부장 이혁진 차장 이봉재 과장 김정화
-------	--------------------------------------

---

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www.lh.or.kr</a>
전화번호	055) 922-5332
편집제작	(주)인투인미디어 02) 2233-4018

---

※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